

초범 약물남용자의 TCI 기질 및 성격 프로파일 특성*

설재용

이장한†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초범인 약물남용자 집단의 일반적인 TCI 기질 및 성격적 특성을 알아보고, 군집분석을 통해 3 위험군(저/중/고)의 TCI 프로파일 차이를 비교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를 유사한 성격 특징을 가진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해 TCI-RS 7개 상위 척도를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추출된 각 군집들의 TCI 특성 차이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약물의존도를 판별하기 위한 도구인 DAST-10 척도를 기준으로 중독 위험성 수준에 따라 3 위험군(저/중/고)으로 분류하여 집단 간 TCI 척도점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약물남용자는 일반 성인 규준점수에 비해 기질적인 차원에서 자극추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분석 결과 '자극추구형 집단', '자극추구와 위험회피가 동시에 높은 집단', '위험회피가 낮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약물남용자는 약물의존 수준이 심각할수록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자기초월이 높은 반면 자율성은 낮았다. TCI의 변인 중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자기초월은 약물의존도, 즉 중독 위험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성격차원의 자율성은 약물의존도와 부적 상관을, 인내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여성 약물남용자의 중독 취약성을 확인하였는데, 중독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의 특성인 '높은 자극추구와 높은 위험회피', '낮은 자율성' 및 '높은 자기초월'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높은 자극추구' 성향이 약물 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하고, 높은 자극추구와 함께 '높은 위험회피'와 '높은 자기초월'이 중독 위험성의 예측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마약, 약물남용자, 초범자, 중독, 재활, 예방, TCI, 기질, 성격

* 본 논문은 설재용의 석사학위 논문(2022) 중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장한,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 02-820-5751, E-mail: clipsy@cau.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Addictio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대검찰청이 2021년 1월 발표한 마약류월간 동향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마약류사범 단속 인원 누계는 총 18,050명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9천명 선을 유지하던 국내 마약사범의 수가 2015년에 1만명 선을 돌파한 이후 역대 최고치이다. 이와 같이 국내 마약사범이 대폭 증가한 것은 최근 다크웹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 연락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구입 사례가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대검찰청, 2021; 이정혁, 2021).

마약사범 증가추세와 함께 주목할 것은 마약사범의 주된 연령층이 30대와 40대였던 것이 20대와 30대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는 30대와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마약사범 중 53.8%였으며, 2018년에는 30대와 40대가 50%를 차지했다. 2019년부터는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여 2019년에는 20대와 30대 마약사범 비율이 47.6%, 2020년에는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대와 30대 마약사범 비율이 49.9%로 증가하였다. 또한 10대 마약사범의 수 역시 20대 마약사범과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령대의 하락은 최근 마약거래 시장의 비대면화, 온라인화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에는 직접 대면하여 현금거래를 하는 고전적인 방식을 선호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과 이동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SNS나 다크웹 상 커뮤니티를 이용한 마약류 매매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매매대금은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판매자가 지정하는 특정한 장소에 은닉해 놓거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판매자에게 송금하기도 한다. 판

매되는 마약류는 판매자가 특정장소에 은닉해 놓고,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은닉된 장소를 구매자에게 알려줌으로써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인 속칭 '던지기 수법'이 주된 밀거래 방식이다. 이러한 비대면 방식, 온라인 방식의 마약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SNS나 가상화폐 사용에 익숙한 젊은 층이 인터넷 몇 번의 검색만으로 예전에 비해 한층 쉽게 마약류를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된다(조정우, 2019).

2019년에 검찰에서는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신설하여 국제마약밀수 루트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검찰과 경찰은 지속적인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으로 유흥환경 정비와 적발 시 처벌 강화를 통한 마약류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문치료, 예방 교육과 홍보는 매우 열악하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정혁, 2019).

따라서, 마약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 치료 및 재활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 뿐 아니라, 약물을 투약하기로 선택하는 이들에 대한 고유한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사후 치료보다는 사전 예방에 더 관심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마약사범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인 경우가 많아 실행 선고율이 높으며 수형생활 동안 치료받을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함으로써 또다시 재범으로 이어진다(박진실, 2017). 따라서 형사처벌 그 자체만으로는 약물 사용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사후적 치료는 물론 활발한 예방 활동도 반드시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다. 약물남용 및 의존에 대한 최선의 치료는 예방이다. 반복적인 약물남용

으로 인해 일단 중독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스스로 약물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데, 마약 사범들은 약물중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수감시설에 감금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약물에 중독이 되면 같은 정도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점점 더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고, 스스로 조절이 불가능해지며, 명백하게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약물 사용을 중단할 수 없게 된다(김성이 등, 2004). 그에 반해 적절히 구성된 사전 예방 프로그램은 경제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사후 치료 프로그램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예를 보면, 학교 내 약물 사용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인 생활기능 훈련(Life Skills Training: LST) 및 가족 강화 프로그램(Strengthening Families Program: SFP)은 대마 흡연과 알코올 사용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비용 면에서는 외래 중독 및 남용 환자에 1년간 소요되는 비용의 10%에 불과하였다(Kuhar, 2012).

약물남용자가 중독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치료에 앞서 학교나 기관에서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확대하거나, 초범단계에서의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이를 위해 마약류범죄 초범자에 대한 연구 역시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초범자에 대한 연구보다는 중독자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또한 다수의 연구는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를 활용한 연구로서, MMPI는 반복된 약물남용으로 인한 정신장애 진단에는 유용하지만, 중독 이전의 개인 고유의 심리적 특성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독 치료나 약물남용 예방정책에 있어서도 약물남용자의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성 약물남용자는 남성에 비해 중독에 더욱 취약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소년기 여성 약물남용자에 대한 조사에서 여성의 코카인 의존성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적은 양의 약물로도 더 많은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마와 아편 남용자 사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빨리 중독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uhar, 2012). 반면,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대한 예측 연구에서는 여성이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서 남성보다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김남희, 2017). 여성은 심리사회적 특성 뿐 아니라 약물 사용패턴과 약물 사용 후 생리적 결과에서 남성과 차이가 있다는 연구(김나연 등, 2019)에서도 약물 사용에서의 남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중독치료 참여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하고 치료에 대한 가족의 지지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Greenfield et al.,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초범단계 약물남용자의 TCI 프로파일을 분석하여 약물남용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성별에 따른 특성 차이를 분석하고, 초범자 집단인 전체 연구 대상자 중에서 중독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중독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질 및 성격적 특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의 정의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즉 '마약류'에 한정하고, 약물남용자에 대한 정의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검찰에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에 처분을 받은 초범인 마약류사범'으로 한정한다.

마약사범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약물 의존자(중독자)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약물 의존자에 대한 심리적 특성연구의 주된 도구로는 MMPI가 사용되어 왔다. 마약류 의존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에 의하면, 마약류 의존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우울증이 심하고 자존감이 낮고 자기개념이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상규, 2002; Blume, 1989; Henderson, Kalichman, & Dugoni, 1994; Kinnier, Metha, Okey, & Keim, 1994; Tarter, 1988). 자존감이 낮은 마약류 의존자는 마약류를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자존감이 증가되기 때문에 마약류를 찾게 된다(Lilija, Larsson, Wilhelmsen, & Hamilton, 2003). 그러나 마약류를 습관적으로 남용하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며 우울감이 생기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다시 마약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Beck, Wright, Newman, & Liese, 1993). 뿐만 아니라 마약류를 남용하면 성격적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Otsuki, 2003).

병원에 입원한 메스암페타민 남용자 52명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는 MMPI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신과적 증상 집단, 정상 프로파일 집단, 반사회적 경향 집단, 신경증적 경향 집단 등 4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유형 1군은 4번(Pd, 반사회성) 척도가 상승하고, 0번(Si, 내향성) 척도가 저하된 다소 반사회적 성향의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유형 2군은 4번(Pd, 반사회성)-9번(Ma, 경조증) 척도들이 상승한 반사회적 성향의 집단, 유형 3군은 1(Hs, 건강염려증)-2(D, 우울증)-3(Hy, 히스테리)-4(Pd, 반사회성)-6(Pa, 편집증)-7(Pt, 강박증)-8(Sc, 조현병) 척도가 대부분 상승한 정신과적 문제를 수반

한 반사회적 성향의 집단, 유형 4군은 정상 프로파일 집단으로 분류되었다(진영호 등, 2000).

대마 및 메스암페타민 등의 사용으로 수감명령을 받았거나 병원에 입원한 82명의 물질 의존자를 대상으로 MMPI 군집분석을 실시했던 한 연구에서는 유형 1군($n=10$)은 1(Hs)-2(D)-3(Hy)-4(Pd)-6(Pa)-7(Pt)-8(Sc)번 척도가 상승한 정신과적 증상을 가진 집단, 유형 2군($n=23$)은 정상 프로파일 집단, 유형 3군($n=23$)은 4(Pd)번 척도만 유일하게 상승한 반사회적 집단, 그리고 유형 4군($n=26$)은 1(Hs)-3(Hy)-4(Pd)-6(Pa)-8(Sc)번 척도가 상승한 신경증적 집단이었다(박상규, 2004).

약물 의존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약물 의존자가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상규, 2004; Allen et al., 1990; Brooner et al., 1993; Kaplan et al., 1994; Ladd, 1996; Robins, 1998; Tarter, 1988; Widiger et al., 1994). 이와 같은 약물 의존자에 대한 MMPI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은 약물 의존자는 주로 반사회적 경향을 시사하는 4번(Pd) 척도가 상승되어 있다는 점이다(박상규, 2004; Calsyn, Roszell, & Chaney, 1989; Hall, Williams, & Burton, 1993; Johnson, Tobin, & Cellucci, 1992; Moss & Werner, 1992; Penk et al., 1978; Weed et al., 1992). 그러나 약물 의존자 개인의 고유한 반사회적 성향 때문에 약물남용에 이르게 된 것인지, 약물을 남용한 결과로 반사회적 성향을 띄게 되었는지 그 선후 관계는 알 수 없으며, 반사회적 성향은 많은 범죄인에게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으로서 마약사범에게만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MMPI 군집분석 연구들에서는 반사회

적 집단과 함께 정상 프로파일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는 MMPI가 모든 약물 의존자의 심리적 특성을 규명하지는 못했다는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TCI는 후천적 성격뿐 아니라 선천적 기질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행청소년이나 범죄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활용한다면 심리상담 및 교정에 매우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김명식, 2013). TCI는 기존의 다른 성격검사들과는 달리 한 개인의 기질과 성격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성격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차원적(dimensional) 모델의 측정도구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마초 및 메스암페타민 남용자에 대한 기존 TCI 활용 연구에 의하면, 대마초 사용군에 비해 메스암페타민 사용군의 충동성(NS2) 및 수줍음(HA3) 경향은 높으나, 성격 특성상에서 목적의식(SD2)이나 자기일치(SD5)와 같은 자율성(SD) 경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권민 등, 2012). 코카인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및 정상집단에 대한 기질 및 성격 비교 연구에 의하면, 정상집단에 비해 코카인 및 알코올 중독자는 자극추구(NS) 경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코올 중독자에 비해 코카인 중독자가 자극추구 경향이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 확인되었다(Le Bon et al., 2004). 약물남용이나 약물 의존은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의 결과이지만, 그 중에서도 성격은 약물남용이나 약물 의존 행위의 성향, 촉발 및 고착화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Le Bon et al., 2004), 일반적으로 약물남용자를 특징짓는 것으로 확인된 가장 두드러진 변수는 감각추구(SS)와 자극추구(NS)라는 선행연구 결과(Zuckerman, 1974;

Cloninger, 1987; Le Bon et al., 2004)에서도 약물남용자 연구에 있어 TCI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범자인 약물 남용자 집단 내에서 중독 위험성을 가진 집단을 선별하고,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약물남용자는 일반인 표준과 다른 고유한 심리적 특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약물의존도와 기질 및 성격차원의 특정 변수는 정적·부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여성 약물남용자는 기질 및 성격 특성에서 남성보다 취약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 4. 불법약물 투약 경험 여부에 따라 기질 및 성격 특성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약물남용자는 기질 및 성격 특성에서 군집 간 특성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약물남용자의 기질 및 성격 특성에서 약물의존도 수준에 따른 집단 간 특성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서울 및 인천 지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재범방지 재활교육에 의뢰된 초범자인 마약류 사범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 현재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하고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소수 인원을 제외하고, 설문예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상자 54명에 대해 설문조사 및 TCI-RS 검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총 54부가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참가자들 중 남성은 38명(70.4%), 여성은 16명(29.6%)이었고, 연령 범위는 18~54세였다 ($M = 30.35, SD = 7.67$).

측정 도구

인구통계학적인 변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나이, 교육수준, 직업, 위반행위 유형, 사용 약물의 종류 등에 대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약물남용 선별검사(Drug Abuse Screening TEST: DAST-10)

DAST-10은 약물의존도 즉, 약물 중독 위험성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28개 문항의 DAST에서 압축된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이며, 지난 12개월 동안 마약류와 의약품의 남용 여부를 선별하기 위한 척도이다(Skinner, 1982).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10점 만점 중 1점에서 2점은 저위험군으로서 중독의 가능성은 낮지만, 약물사용을 지속하거나 다시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단계이고, 3점에서 5점은 중위험군으로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단계이며, 6점에서 10점은 고위험군으로서 중독의 가능성이 높은 단계이다. 본 도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Kim(2014)의 연구에서는 .71로 분석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74였다.

한국판 기질 및 성격 유형 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RS)

본 연구에서는 독일판 기질 및 성격검사(TCI-R)의 단축형인 TCI-RS(Goth, Cloninger, & Schmeck, 2003)를 민병배 등(2021)이 국내에서 표준화한 한국판 기질 및 성격검사(TCI-RS) 성인용이 사용되었다. 본 도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일반성인 집단의 경우 .77~.88 수준으로 나타났으며(민병배 등, 2021),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차원별 문항을 공개하지 않는 (주)마음사랑의 저작권보호 정책상 산출할 수 없었다. TCI-RS는 기질 및 성격 차원의 7개 상위척도 하에 29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총 140문항의 검사로서, 유전성이 있는 4가지 기질 차원(temperament dimension)과 후천적으로 사회 학습에 의해 영향 받는 3가지 성격 차원(character dimens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TCI를 통해 측정되는 기질 차원은 자극추구(NS: Novelty Seeking), 위험회피(HA: Harm Avoidance), 사회적 민감성(RD: Reward Dependence), 인내력(PS: Persistence)이고, 성격 차원은 자율성(SD: Self-directedness), 연대감(CT: Cooperative), 자기초월(ST: Self-Transcendence)이다.

기질 차원에서의 자극추구(NS)는 새로운 자극이나 잠재적인 보상 단서에 접하면 이러한 자극에 끌리면서 행동이 활성화되는 기질적 성향을 말한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성미가 급하고 쉽게 흥분하며 탐색적이고 호기심이 많다. 또한 충동적이고 열정적이면서도 쉽게 지루해하고 자유분방하다. 이들은 자극적인 모험을 추구하며 낯선 장소나 상황을 탐색하는 데서 흥분을 느끼며, 구조화된 단조로운 작업을 지루해하고 견디기 힘들어하며 변화를 좋아한다. 종종 즉흥적인 인상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감정변화가

많다. 일반적으로 돈이나 에너지를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 절제도 어려운 편이다. 또한 규칙이나 규정에 얽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좌절스러운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한다(민병배 등, 2021).

위험회피(HA)는 위험하거나 혐오스러운 자극에 접하면 행동이 억제되고 위축되는 기질적 성향이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조심성이 많고 잘 긴장하며, 겁이 많고 안전을 중시하며 수동적이다. 다른 사람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걱정이 많고 비판적인 경향을 보인다. 불확실한 상황이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되고 수줍어한다. 이들은 에너지 수준이 낮아 자주 피곤해하고 쉽게 지친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고, 비판과 처벌에 대해서 민감하다(민병배 등, 2021).

사회적 민감성(RD)은 지속적인 강화가 없더라도 친밀감 또는 애착이라는 사회적 보상을 위해 행동을 유지하는 성향을 말하며, 인내력(PS)은 지속적인 강화 없이도 한 번 보상된 행동을 일정한 시간 동안 꾸준히 지속하려는 기질적 성향을 의미한다(민병배 등, 2021).

성격차원에서의 자율성(SD)은 자신을 '자율적 개인'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은 자율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자신을 자율적 개인으로 이해하고 또한 자율적 개인이 되고자 노력한다. 자율성은 자기결정력과 의지력 두 가지 기본 개념에 기초한다. 즉 자율성이란 자신이 선택한 목표와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자기결정력)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통제, 조절, 적응시키는 능력(의지력)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여기에는 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의 수용, ② 목적의식과 의미 있는 목표의 추구, ③ 목표 추구 행동에서의 유능감과 주도성, 그리고 ④ 자신의 한계에 대한 수용과 자존감 등이 포함된다(민병배 등, 2021).

연대감(CO)은 자신을 인류 혹은 사회의 통합적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자기초월(ST)은 개인이 우주 만물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우주의 통합적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말한다(민병배 등, 2021).

연구 절차

연구자는 2021년 상반기 서울 및 인천지역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담당자들에게 사전에 설문협조 요청하였고, 연구의 목적 및 설문 실시 지침에 대해 설명하였다. 2021년 4월 중순에 인천 소재 마약퇴치운동본부에 교육 의뢰된 대상자 13명 및 2021년 5월 중순에 서울 소재 마약퇴치운동본부에 교육 의뢰된 대상자 13명, 2021년 5월 하순에 서울 소재 마약퇴치운동본부에 교육 의뢰된 대상자 16명, 2021년 6월 중순에 인천 소재 마약퇴치운동본부에 교육 의뢰된 대상자 12명 등 총 54명(남자 38명, 여자 16명)을 대상으로 각 지역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설문 동의를 구하고, 연구자가 직접 설문 및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에게는 기념 필기구를 보상으로 제공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고,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주요 변인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약물의존도와 TCI 상위척도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고,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 및 불법약물 투약경험 여부에 따른 TCI 프로파일 양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두 집단 간 TCI-RS 척도 결과에 대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체 연구 대상자를 유사한 성격 특징을 가진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해 TCI-RS 7개의 상위척도를 사용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에서 유사성 측정치로는 유클리드 제곱거리(squared 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하였고, 군집화 방식으로는 집단 내 평균 결합법을 사용하였다. 추출된 각 군집들의 TCI 프로파일 특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세 군집에 대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사후검증(Scheffé test)을 실시하였다.

중독 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한 DAST-10 척도를 기준으로 약물의존도가 낮은 저위험군, 중간인 중위험군, 의존도가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세 집단 간 TCI-RS 척도에서 점수의 차이를 ANOVA로 검증하였고 사후검증(Scheffé test)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자료 분석에는 SPSS 26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이 사용되었으며,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 α 는 .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참가자 특성

연구 대상자 중 남자가 전체의 70.4%인 38명이며, 여자는 29.6%인 16명이었다. 평균 연

령은 30.35($SD=7.67$)세였으며, 20대가 46.3%(25명)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40.7%(22명), 40대가 7.4%(4명), 50대가 3.7%(2명) 순이었다. 취급한 약물의 종류는 대마가 46.3%(25명), 필로폰이 27.8%(15명), 펜타민 등 다이어트 약이 7.4%(4명), 헤로인 등 마약이 5.6%(3명), 졸피뎀 등 수면제가 5.6%(3명), GHB가 3.7%(2명), 기타 향정약품이 3.7%(2명)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유형은 투약(흡연)이 77.8%(4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매가 9.3%(5명), 기타(수수, 소지 등) 7.4%(4명), 수입이 3.7%(2명), 광고가 1.9%(1명)였고, 약물 취급 목적에서는 쾌락 목적이 40.7%(22명), 치료(불면증, 우울증 등) 목적이 18.5%(10명), 기타 16.7%(9명), 다이어트가 13.0%(7명), 친목이 11.1%(6명)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 집단의 TCI 상위척도 점수는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다. 약물남용자 전체($N=54$)의 TCI 수준을 살펴보면, 기질적 특성에서 높은 자극추구(NS)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차원의 자극추구 점수 60.39점은 일반 성인 규준점수 52점(민병배 등, 2021)에 비해 1표준편차 정도 높기 때문에 유의하게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약물남용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높은 자극추구(NS)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변인 간의 상관 관계

약물남용자의 TCI 7개 상위척도와 약물의존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다. 기질 차원의 위험회피(HA)가 높을수록 자극추구(NS)가 높았으며($r(52)=-.299, p<.05$), 인내

표 1. 연구 참가자들의 TCI-RS 7개 상위척도 T점수 (N=54)

척도		M(SD)
NS (Novelty Seeking)	자극추구	60.39(10.81)
HA (Harm Avoidance)	위험회피	50.50(14.12)
RD (Reward Dependence)	사회적 민감성	52.57(12.99)
PS (Persistence)	인내력	51.74(14.74)
SD (Self-Directedness)	자율성	49.06(13.78)
CO (Cooperative)	연대감	48.00(11.86)
ST (Self-Transcendence)	자기초월	48.39(12.88)

표 2. 주요 변인 간의 상관 계수 (N=54)

	1	2	3	4	5	6	7	8
1. NS								
2. HA	.30*							
3. RD	.11	-.02						
4. PS	.14	-.48**	.23					
5. SD	-.26	-.71**	.01	.66**				
6. CO	-.07	-.26	.38**	.45**	.27			
7. ST	.42**	.37**	.16	-.03	-.39**	.36		
8. 의존도	.37**	.29*	.20	.11	-.26	.07	.35*	

주. NS(자극추구), HA(위험회피), RD(사회적 민감성), PS(인내력), SD(자율성), CO(연대감), ST(자기초월)
* $p < .05$, ** $p < .01$

력(PS)은 낮았다($t(52) = -.483, p < .01$). 또한 위험 회피가 높을수록 성격차원의 자율성(SD)은 낮 게 나타났으며($t(52) = -.707, p < .01$), 자기초월 (ST)은 높았다($t(52) = .418, p < .01$).

자율성(SD)이 높을수록 인내력(PS)이 높았 으며($t(52) = .299, p < .05$), 연대감(CO)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t(52) = .299, p < .05$). 반면, 자기초월 (ST)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52) = -.392, p < .01$).

TCI 각 척도와 약물의존도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면, 기질차원의 자극추구(NS)와 위험회피 (HA), 성격차원의 자기초월(ST)은 약물의존도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비록 통계상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 았으나, 성격차원의 자율성(SD)은 약물의존도 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TCI 특성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 총 54명을 성별에 따라 분

류해 보면 남자가 전체의 70.4%인 38명이며, 여자가 전체의 29.6%인 16명이었다. 여성 약물남용자의 프로파일 양상은 '자극추구와 위험회피가 동시에 높은 집단'으로서, 남자에 비해 위험회피가 높고, 자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남용자의 성별에 따른 두 집단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 약물남용자의 위험회피(HA) 점수(*T*=48)에 비해 여자 약물남용자의 위험회피 점수(*T*=57)가 높게 나타남으로써($t(52)=-2.33$, $p<.05$), 위험회피 상위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회적 민감성(RD) 척도에서는 남자(*T*=50)보다 여자(*T*=58)가 높았고, 자율성(SD) 척도에서는 여자(*T*=44)가 남자(*T*=51)보다 더 낮았다.

불법약물 투약경험 여부에 따른 TCI 수준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 총 54명 중 불법약물 투약

경험이 실제로 있는 사람이 전체의 74.1%(40명), 투약경험 없는 사람이 전체의 25.9%(14명)로 나타났다. 불법약물을 투약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투약한 경험이 없는 집단의 TCI 점수는 두 집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군집분석 결과 군집 간 TCI 수준의 차이

약물남용자를 유사한 성격 특징을 가진 군집으로 분류하기 위해 TCI-RS 7개의 상위 척도를 군집분석에 사용하였다. 적절한 군집 수를 결정하기 위해 2,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본 결과, TCI 수준에서 각 군집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군집 수를 어떻게 정하든 관계는 없으나 사례 수를 고려할 때 2개의 군집보다는 3개의 군집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세분화하여 이해하기 적당하며, 약물의존도에 따른 3개의 집단(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과도 비교가 용이하도록 군집 수를 3개로 정하여 분석하였다.

3개 군집의 TCI 평균 프로파일은 그림 1에

표 3. 성별에 따른 TCI-RS T점수의 차이 (N=54)

	남자 (n = 38)	여자 (n = 16)	M (SD) N = 54	t	p
NS	60.42(10.33)	60.31(12.23)	60.39(10.81)	.033	.973
HA	47.71(12.52)	57.13(15.85)	50.50(14.12)	-2.33*	.024
RD	50.34(12.12)	57.88(13.84)	52.57(12.99)	-2.00	.051
PS	53.50(14.55)	47.56(14.79)	51.74(14.74)	1.36	.179
SD	51.18(12.35)	44.00(16.01)	49.06(13.78)	1.79	.080
CO	48.50(11.71)	46.81(12.52)	48.00(11.86)	.47	.638
ST	47.68(13.09)	50.06(12.61)	48.39(12.88)	-.62	.541

주. NS(자극추구), HA(위험회피), RD(사회적 민감성), PS(인내력), SD(자율성), CO(연대감), ST(자기초월)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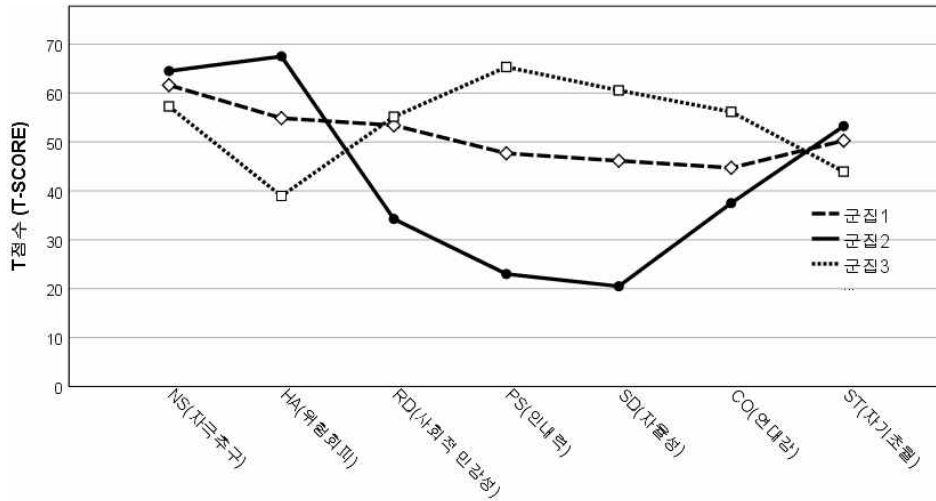


그림 1. 군집별 TCI 기질 및 성격척도 T점수 프로파일

제시된 것과 같다. 군집 2의 사례 수가 본 연구 대상자의 7.4%($n=4$)에 해당하여 다른 군집과 사례 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므로 ANOVA의 전제조건인 등분산 가정에 위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분산의 동질성 검정(Levene's test)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서의 TCI 7개 상위척도의 유의확률은 모두 .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3개 군집 간 분산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군집 1($n=32$)은 기질차원에서 자극추구($T=61$)가 높는데 반해 기질차원의 인내력($T=48$), 성격차원의 자율성($T=46$)과 연대감($T=45$)이 낮은 '자극추구형 집단'이다. 군집 2($n=4$)는 기질차원에서 자극추구($T=65$)와 위험회피($T=68$)가 매우 높은 반면, 기질차원의 사회적 민감성($T=34$)과 인내력($T=23$), 성격차원에서 자율성($T=21$)이 극히 낮은 '자극추구와 위험회피가 동시에 높은 집단'이다. 군집 3($n=18$)은 자극추구($T=57$)와 사회적 민감성($T=55$)이 높은 반면 위험회피($T=39$)가 낮고, 자율성($T=61$) 및 연대감($T=56$)은 높은 '위험회피가 낮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는

각 군집 간 TCI-RS 척도 T점수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척도들에 대한 T점수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자극추구(NS) 및 자기초월(ST)을 제외한 5개의 상위 척도에서 세 군집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군집 3의 위험회피 점수($T=39$)가 군집 1($T=55$) 및 군집 2($T=68$)보다 유의하게 낮았고($F(2, 51)=16.55, p<.001$), 군집 2의 사회적 민감성 (RD)점수($T=34$)는 군집 1($T=53$) 및 군집 3($T=55$)보다 유의하게 낮았다($F(2, 51)=5.08, p<.05$). 군집 2는 인내력(PS) 및 자율성(SD)이 극히 낮은 특성을 보였다. 군집 2의 인내력 점수($T=23$)는 군집 1($T=48$) 및 군집 3($T=65$)보다 유의하게 낮게($F(2, 51)=41.86, p<.001$) 나타났으며, 자율성 점수($T=21$)는 군집 1($T=46$) 및 군집 3($T=61$)보다 유의하게 낮았다($F(2, 51)=36.27, p<.001$). 연대감(CO) 점수에서는 군집 2($T=38$)가 군집 3($T=56$)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F(2, 51)=9.25, p<.001$).

3개의 군집으로 분류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난 군집 1($n=32$)은 본 연구 대상자의 59%에

표 4. 각 군집 간 TCI-RS T점수의 차이 (N=54)

	군집 1 (n = 32)	군집 2 (n = 4)	군집 3 (n = 18)	M (SD) N = 54	F	p	Scheffé
NS	61.63(11.74)	64.50(11.56)	57.28(8.49)	60.39(10.81)	1.26	.293	
HA	54.88(10.46)	67.50(14.91)	38.94(11.71)	50.50(14.12)	16.65***	<.001	3<1, 2
RD	53.41(10.47)	34.25(15.37)	55.17(14.06)	52.57(12.99)	5.08*	.010	2<1, 3
PS	47.69(8.27)	23.00(8.29)	65.33(10.93)	51.74(14.74)	41.86***	<.001	2<1<3
SD	46.16(10.26)	20.50(7.77)	60.56(6.46)	49.06(13.78)	36.27***	<.001	2<1<3
CO	44.72(9.96)	37.50(15.59)	56.17(9.90)	48.00(11.86)	9.25***	<.001	2<3
ST	50.28(12.20)	53.25(19.87)	43.94(11.95)	48.39(12.88)	1.75	.184	

주. NS(자극추구), HA(위험회피), RD(사회적 민감성), PS(인내력), SD(자율성), CO(연대감), ST(자기초월)

* $p < .05$, ** $p < .01$, *** $p < .001$

해당되는 ‘자극추구형 집단’이다. 군집 1의 자극추구 T점수는 61.6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군집의 위험회피(HA) T점수는 54.88점으로 평균에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기타 척도 점수도 평이하게 나타났다.

군집 2(n=4)는 본 연구 대상자의 7.4%에 해당되는 ‘자극추구와 위험회피가 동시에 높은 집단’이다. 성격차원에서 연구 대상자 전체의 자율성(SD) T점수는 49.06점으로, 일반인 기준점수 50점과 차이가 없었으나, 군집 2의 자율성 점수는 20.50점으로, 기준점수보다 2표준편차 정도 낮게 나타남으로써,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극추구와 위험회피가 동시에 높은 사람은 보상을 위한 접근행동과 위험을 피하기 위한 회피행동이 동시에 나타남에 따라 접근-회피 갈등을 빈번하게 경험한다. 자극추구에 의한 즉각적인 충동이 나타나면 위험회피가 이를 이차적으로 검열하여 억제함으로써 신경증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민병배 등, 2021). 한편에서 즐거움과 보상을 얻기 위해 새로운 자극에 다가가려 하고, 다른 한편에서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새로운 자극을 피하려고 하는 상반된 욕구를 느끼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행복한 균형을 찾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만성적으로 좌절감과 우울감을 느끼기 쉽다(민병배 등, 2021). 또한, 군집 2의 인내력(T=23.00)은 군집 1(T=47.69)과 군집 3(T=65.33)의 인내력 점수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았다. 이 군집의 성격적 차원에서의 특징은 자율성(T=20.50)이 극단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군집 3(n=18)은 본 연구 대상자의 33.3%에 해당되는 ‘위험회피가 낮은 집단’이다. 이 군집은 위험회피 점수가 38.94점으로서 임상적으로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위험회피가 낮은 사람들은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별로 위축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며 겁이 없고 조심성이 부족해 세심한 계획이나 검토 없이 일을 진행한다(한영옥, 2012). 이 군집의 성격차원에서의 특징으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율성, 중간 수준의 연대감과 낮은 수준의 자기초월을 나타내고 있다.

약물의존도에 따른 집단 간 TCI 수준의 차이

약물남용선별검사 DAST-10의 점수에 따라, 점수가 낮은 저위험군, 중간 점수인 중위험군, 점수가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TCI-RS 척도에서의 세 집단 간 프로파일 차이를 비교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각 척도의 점수는 표 5에 제시된 것과 같

다. 기질차원에서는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에서, 성격차원에서는 자율성 및 자기초월 상위 척도에서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위험군의 자극추구점수(T=69)가 중위험군(T=57) 및 저위험군(T=58)보다 유의하게 높았고($R^2, 51)=7.18, p<.01$), 고위험군의 위험회피 점수(T=60)는 중위험군(T= 46) 및 저위험군(T=49)보다 유의하게 높았다($R^2, 51)=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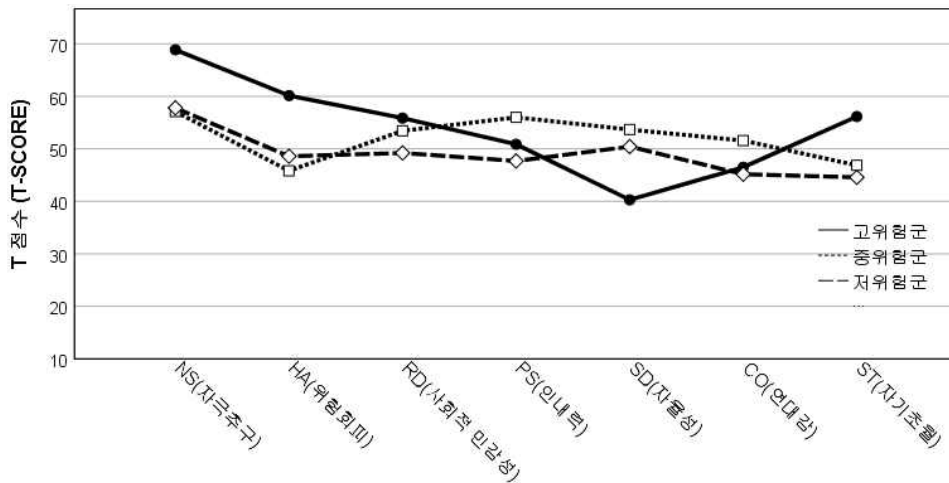


그림 2. 군집별 TCI 기질 및 성격척도 T점수 프로파일

표 5. 약물의존도 수준별 집단 간 TCI-RS T점수의 차이 (N=54)

	저위험군 (n = 19)	중위험군 (n = 21)	고위험군 (n = 14)	M (SD) N = 54	F	p	Scheffé
NS	57.79(9.68)	57.10(10.40)	68.86(8.69)	60.39(10.81)	7.18**	.002	2, 1<3
HA	48.58(10.00)	45.81(15.41)	60.14(12.94)	50.50(14.12)	5.36**	.008	2, 1<3
RD	49.21(11.06)	53.43(14.06)	55.86(13.63)	52.57(12.99)	1.13	.330	
PS	47.68(14.10)	56.00(15.14)	50.86(14.28)	51.74(14.74)	1.66	.200	
SD	50.42(13.81)	53.67(11.06)	40.29(14.21)	49.06(13.78)	4.67*	.014	2>3
CO	45.16(10.25)	51.57(13.70)	46.50(10.23)	48.00(11.86)	1.65	.202	
ST	44.37(12.86)	46.86(12.59)	56.14(10.55)	48.39(12.88)	4.02	.024	1<3

주. NS(자극추구), HA(위험회피), RD(사회적 민감성), PS(인내력), SD(자율성), CO(연대감), ST(자기초월)

* $p < .05$, ** $p < .01$, *** $p < .001$

표 6. TCI-RS 하위 척도 원점수의 약물의존도 수준별 집단 간 차이 (N=54)

	저위험군 (n = 19)	중위험군 (n = 21)	고위험군 (n = 14)	M (SD) N = 54	F	p	Scheffé
NS1	11.05(3.08)	11.10(3.97)	12.57(3.59)	11.46(3.58)	.91	.411	
NS2	8.26(2.88)	7.71(3.80)	11.79(2.58)	8.96(3.58)	7.47**	.001	2, 1<3
NS3	9.74(3.60)	9.29(3.05)	11.64(3.10)	10.06(3.35)	2.32	.108	
NS4	7.74(2.68)	7.38(3.54)	10.50(4.01)	8.31(3.59)	3.95*	.025	2<3
HA1	8.47(4.23)	8.43(4.82)	12.93(3.77)	9.61(4.72)	5.45**	.007	2, 1<3
HA2	10.42(2.57)	8.95(3.78)	11.86(4.00)	10.22(3.59)	3.01	.058	
HA3	8.11(3.41)	8.19(3.97)	9.79(4.04)	10.22(3.59)	.96	.389	
HA4	7.21(3.12)	8.33(4.04)	11.57(5.65)	8.78(4.51)	4.45**	.017	1<3
SD1	13.89(3.13)	14.38(2.94)	9.64(3.54)	12.98(3.71)	10.53***	<.001	1, 2>3
SD2	11.21(3.77)	13.19(3.59)	10.00(5.01)	11.67(4.19)	2.78	.071	
SD3	7.32(1.92)	7.19(2.46)	6.57(3.52)	7.07(2.58)	.36	.699	
SD4	4.84(1.92)	4.81(1.75)	2.71(2.23)	4.28(2.12)	6.12**	.004	1, 2>3
SD5	12.05(2.99)	11.95(3.84)	9.00(4.13)	11.22(3.82)	3.52*	.037	
ST1	8.05(3.46)	8.95(5.12)	12.36(4.11)	9.52(4.60)	4.26*	.019	1<3
ST2	4.74(4.82)	5.59(4.44)	10.21(5.31)	6.63(5.21)	5.57*	.006	1, 2<3
ST3	6.00(5.20)	7.62(6.10)	10.21(5.36)	7.72(5.74)	2.28	.112	

주. NS(자극추구), HA(위험회피), RD(사회적 민감성), PS(인내력), SD(자율성), CO(연대감), ST(자기초월)

* $p < .05$, ** $p < .01$, *** $p < .001$

$p < .01$). 또한 고위험군의 자기초월 점수($T=56$)는 저위험군의 점수($T=44$)보다 유의하게 높게($F(2, 51)=4.02, p < .05$) 나타났다. 반면, 고위험군의 자율성점수($T=40$)는 중위험군($T=54$) 및 저위험군($T=50$)보다 유의하게 낮게($F(2, 51)=4.67, p < .05$)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의 TCI 상위척도에서 세 집단 간 차이를 보인 자극추구(NS), 위험회피(HA), 자율성(SD), 자기초월(ST)만을 대상으로 이들 하위 척도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자극추구의 하위척도 NS2 및 NS4, 위험회피의 하위척도 HA1 및 HA4, 자율성의 하위척도 SD1, SD4 및 SD5, 자기초월 하위척도 ST1 및 ST2에서 군집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극추구(NS)의 하위척도에서는 NS2(심사숙고/충동성) 및 NS4(질서정연/자유분방)에서 군집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위험군의 NS2점수(12점)는 저위험군(8점) 및 중위험군(8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F(2, 51)=7.47, p < .01$), 고위험군의 NS4점수(11점)는 중위험군(7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F(2, 51)=3.95, p < .05$). 따라서 고위험군은 기질적으로 충동성이 높고 자유분방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험회피(HA) 하위척도에서는 HA1(낙천성/예기불안)과 HA4(활기 넘침/쉽게 지침)에서 군집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위험군의 HA1점수(13점)는 저위험군(8점) 및 중위험군(8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F(2, 51)=5.45,$

$p < .01$), 고위험군의 HA4점수(12점)는 저위험군(7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R^2, 51$)=4.45, $p < .01$).

자율성(SD)의 하위척도에서는 SD1(책임전가/책임감)과 SD4(자기불만/자기수용), SD5(낮은 자기일치/높은 자기일치)에서 군집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위험군의 SD1점수(10점)는 저위험군(14점) 및 중위험군(15점)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R^2, 51$)=10.53, $p < .001$), 고위험군의 SD4점수(3점)는 저위험군(5점) 및 중위험군(5점)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R^2, 51$)=6.12, $p < .01$), 고위험군의 SD5점수(9점)는 저위험군(12점) 및 중위험군(12점)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R^2, 51$)=3.52, $p < .05$).

자기초월(ST) 하위척도에서는 ST1(자의식/창조적 자기방각)과 ST2(낮은 우주만물과의 일체감/높은 우주만물과의 일체감)에서 군집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위험군의 ST1점수(12점)는 저위험군(8점) 및 중위험군(9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R^2, 51$)=4.26, $p < .05$), 고위험군의 ST2점수(10점)는 저위험군(5점) 및 중위험군(6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2, 51$)=5.57, $p < .05$).

이와 같은 결과를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TCI-RS로 알아본 약물남용자의 가장 일반적 특성은 높은 자극추구(NS) 성향이라는 것이다. 약물의존도 및 TCI 상위 7개 척도 간의 상관 분석 결과, 기질차원의 자극추구(NS)와 위험회피(HA), 성격차원의 자기초월(ST)은 약물의존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통계상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성격차원의 자율성(SD)은 약물의존도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남용자의 성별에 따른 특성에서는 여자 약물남용자의 위험회피(HA)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여자가 남자보다 자율성(SD)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약물남용자의 기질 및 성격 특성에서 남녀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TCI-RS 7개 상위척도 수준에 따라 3개의 군집으로 군집 분석한 결과, ‘자극추구형 집단’, ‘자극추구와 위험회피가 동시에 높은 집단’, ‘위험회피가 낮은 집단’ 등 특징적인 3개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자극추구(NS) 및 자기초월(ST)을 제외한 5개의 상위척도에서 세 군집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약물남용선별검사 DAST-10 점수를 바탕으로 약물의존도 수준 즉, 중독 위험성에 따라 세 집단(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분류하여 TCI 척도 간의 차이 양상을 살펴본 결과, 기질차원에서는 자극추구(NS) 및 위험회피(HA)에서, 성격차원에서는 자율성(SD) 및 자기초월(ST) 상위척도에서 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중독 위험성이 높은 집단인 고위험군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고위험군의 특성은 기질차원에서는 ‘높은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낮은 자율성’, 성격차원에서는 ‘높은 자기초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초범인 약물남용자의 일반적인 TCI 특성을 확인하고, 약물남용자의 기질 및 성격척도를 군집 분석한 세 군집 간 TCI 프로파일 특성과, 약물의존도 수준을 기준으로 분류된 세 집단(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간의 TCI 프로파일 양상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중독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질 및 성격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 알아 본 약물

남용자 전체($N=54$)의 일반적인 TCI 프로파일 양상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기질적 특성은 높은 자극추구(NS) 성향이다. 기질차원의 자극추구 점수 60.39점은 일반 성인 기준점수 52점(민병배 등, 2021)에 비해 1표준편차 정도 높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대마초 및 메스암페타민 남용자는 정상대조군에 비해 높은 자극추구(NS)의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된 연구(권민 등, 2012), 코카인 및 알코올 중독자는 정상집단에 비해 자극추구(NS) 경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Le Bon et al., 2004) 결과에 부합한다. 약물남용이나 약물 의존은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의 결과이지만, 그 중에서도 성격은 약물남용이나 약물 의존행위의 성향, 촉발 및 고착화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Le Bon et al., 2004).

본 연구는 약물남용자를 특징짓는 것으로 확인된 가장 두드러진 변수는 감각추구(SS)와 자극추구(NS)라는 선행연구 결과(Zuckerman, 1974, 2008; Cloninger, 1987; Le Bon et al., 2004)를 재확인하였다. 자극추구 성향을 가진 사람은 새롭거나 낯선 자극에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스틸 넘치는 모험이나 짜릿하게 흥분되는 경험을 즐기며, 불충분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한영옥, 2012). 또한 단조롭고 변화가 적은 일에는 쉽게 지루함을 느끼며 어떤 일을 차분하고 꾸준하게 지속하는 면이 부족하다(민병배 등, 2021). 이러한 기질적 특징이 약물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고 약물 사용에서 오는 쾌락을 탐닉하게 하며, 이러한 쾌락이 보상이 되어 다시 약물을 사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의존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극추구의 성향의 하위척도 특성을 살펴보면, NS2 하위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은 쉽게 흥분하며, 감정 변화가 극적이고, 순간적인 인상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 기분과로서, 불충분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며 충동 조절이 어려운 편이다(민병배 등, 2021). NS4 하위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을 보이며, 엄격한 규칙이나 규제가 없는 활동을 선호하고, 들키지만 않는다면 법이나 규칙을 더 쉽게 어길 수 있다(민병배 등, 2021).

DAST-10 척도에 의해 측정된 약물의존도와 TCI-RS 상위 7개 척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기질차원의 자극추구(NS)와 위험회피(HA), 성격차원의 자기초월(ST)은 약물의존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록 통계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성격차원의 자율성(SD)은 약물의존도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약물의존도가 높을수록 자극추구(NS)와 위험회피(HA), 자기초월(ST)이 높았으며, 자율성(SD)은 낮았다.

약물남용자의 성별에 따른 TCI 차이 양상을 살펴본 결과, 여자 약물남용자는 고위험군의 프로파일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자 약물남용자의 위험회피(HA) 점수($T=57$)는 남자 약물남용자의 위험회피 점수($T=48$)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여자 약물남용자의 자율성(SD) 척도가 남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자 약물남용자의 TCI 프로파일 양상은 전체 약물남용자를 TCI 특성에 따라 3개의 군집으로 군집 분석했을 때의 자극추구와 위험회피가 동시에 높은 집단인 '군집 2'와 유사하며, DAST-10 약물의존도 수준에

따라 3개의 집단으로 분류 분석했을 때의 '고위험군'의 양상과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한 '군집 2'와 '고위험군' 두 집단의 공통된 특징은 '높은 자극추구와 높은 위험회피, 낮은 자율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약물의존도 수준에 따른 고위험군의 남녀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 약물남용자 전체($N=38$)의 23.7%인 9명이 고위험군에 속했으며, 여자 약물남용자 전체($N=16$)의 31.3%인 5명이 고위험군에 속했다. 결국 여자 약물남용자는 남자 약물남용자에 비해 위험회피가 높고 자율성이 낮으며, 약물을 남용하게 되면 남자에 비해 비교적 쉽게 약물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이러한 여성 약물남용자의 특성은 남성에 비해 중독에 더욱 취약하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코카인 의존성을 보이는 비율이 높고, 적은 양의 약물로도 더 많은 증상을 보이며, 대마와 아편 남용자 사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빨리 중독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여성 약물남용자에 대한 연구(Kuhar, 2012)결과에 부합한다. 또한, 여성은 화합물에 대해 더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 알코올과 약물남용으로 인한 문제의 정도와 합병증 진행 시간에서 남성과는 다르다는 해외 연구(Smith & Hiller, 2021) 및 여성의 심리 사회적 특성 뿐 아니라 약물 사용패턴과 약물 사용 후 생리적 결과에서 남성과 차이가 있다는 국내 연구(김나연 등, 2019)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여성의 약물 사용 및 치료 역학은 남성과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약물남용 경향에 대한 성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Mushanyu et al., 2018).

불법약물 투약 경험 여부에 따른 두 집단 간의 TCI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점수의 차이는 유사한 수준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불법 약물 투약 경험이 있는 약물남용자와 실제로 약물 투약의 경험은 없는 마약법 위반 사범과의 TCI 수준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오히려 본 연구대상 집단의 일반적 특성인 높은 자극추구 성향이 불법 약물 투약의 결과가 아닌 마약류 초범자의 고유한 기질적 특성임을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TCI-RS 7개 상위척도 특성에 따라 3개의 군집으로 분류 분석한 결과로 나타난 약물남용자의 프로파일 양상은, TCI 반응 양상을 통해 본 남성 병적 도박자의 기질 및 성격 특성(한영옥, 2012)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약물남용자를 3개의 군집으로 분류 분석한 결과, '자극추구형 집단', '자극추구와 위험회피가 동시에 높은 집단', '위험회피가 낮은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병적 도박자 연구에서의 군집 분석 결과 '자극추구와 위험회피가 동시에 높은 폭발적 집단', '자극추구형 집단', '위험회피가 낮은 집단' 등 3개의 특징적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각 군집 분석의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위험회피(HA)의 정도에 따라 위험회피가 높은 집단, 위험회피가 보통인 집단, 위험회피가 낮은 집단으로 나뉜 것이라는 점이다. 분류된 군집 중 '군집 2'의 인원($n=4$)은 전체 연구 대상자의 7.4% 밖에 해당하지 않아 군집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집 2가 보여주는 특성은 '높은 자극추구와 높은 위험회피', '낮은 자율성', '높은 자기초월'로서, 본 연구에서 DAST-10 척도에 의해 분류한 '고위험군'의 전형적인 특성

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대상자 전체가 약물 중독자, 상습 투약자가 아닌 초범인 단순 남용자인 것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고위험군의 특성을 가진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가 TCI를 활용하여 이러한 소수 인원의 중독 위험집단을 판별해 내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약물남용선별검사 DAST-10 점수를 기준으로 약물 의존도 수준에 따라 세 집단(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차이 양상을 살펴본 결과, 약물에 대한 의존도 수준이 높을수록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 자기초월이 높았으며 자율성은 낮았다. 자극추구(NS) 점수는 저위험군과 중위험군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고위험군의 자극추구 점수는 다른 군집에 비해 1표준편차 이상 높게 나타남으로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약물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할수록 자극추구 기질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위험회피(HA) 역시 약물의존도 수준이 높은 고위험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고위험군($n=14$)의 위험회피 점수($T=60.14$)는 일반 성인 기준점수($T=48$)보다 1표준편차 정도 높게 나타남으로써, 약물의존도 수준이 높을수록 위험회피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 전체($N=54$)의 위험회피 점수($T=50.50$)는 일반인 기준점수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약물남용자의 위험회피 기질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고 볼 수는 없었다.

자극추구(NS) 기질의 T점수에서는 전체 연구 대상자의 70.4%가 5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해 위험회피(HA) 기질은 42.6%만이 55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높은 자극추구 기질은 약물남용자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위험회피 기질은 약물 의존도, 즉 중독의 위험성과 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양상은 TCI를 활용한 병적 도박자의 기질 및 성격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남성 병적 도박자 연구에서는 대상자 전체의 위험회피 점수는 일반인 기준점수($T=48$)와 유의한 차이가 없어 병적 도박자의 위험회피 기질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없었지만, 도박 심각도가 높은 상위집단의 위험회피가 하위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한영옥, 2012). 이와 같이 TCI를 사용한 병적 도박자의 기질 및 성격 특성 선행연구들에서 연구 대상자들의 자극추구 경향이 유의미하게 높음이 공통적으로 확인되며(Janiri, Martinotti, Dario, Schifano, & Bria, 2007; Kim & Grant, 2001; Nordin & Nylander, 2007), 병적 도박자는 자극추구 뿐만 아니라 위험회피 역시 일반대조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Nordin & Nylander, 2007). 따라서, 약물이나 도박 등 중독과 관련되어서는 높은 자극추구(NS)와 더불어 높은 위험회피(HA) 성향이 중독의 심각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험회피(HA)란 위험한 약물, 또는 위험한 범죄행위를 회피하는 기질이므로 위험회피가 높은 사람은 약물 사용을 꺼려할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을 수 있다. 위험회피가 높은 사람은 비판과 처벌에 민감한 것으로도 해석하기 때문이다(민병배 등, 2021).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약물취급 목적 중 쾌락목적이 40.7%로 나타났듯이, 약물남용자는 약물이 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그릇된 신념, 즉 쾌락에 대한 강한 기대감에서 약물을 기꺼이 사용하게

되며, 이런 경우 약물의 부작용이나 처벌의 두려움 보다는 약물이 주는 긍정적 보상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약물을 위험물이나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박 역시 현행법 상 형사범이지만(형법 제 246조), 병적 도박자에게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보다는 한 번의 시도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요행심이나, 잃어버린 본전을 복구하고자 하는 보상심리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도박자의 행동을 강화하고, 결국 도박 중독에 이르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위험회피의 하위척도 특성을 살펴보면, HA1 하위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며, 위험과 실패를 먼저 예상하는 비관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민병배 등, 2021). HA4 하위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허약하고 활력이 적은 것으로 비치며, 쉽게 지치고 피곤해지는 경향이 있다(민병배 등, 2021).

성격차원에서 자율성(SD) 점수는 고위험군이 유의하게 낮았다. 바꾸어 말하면, 약물의존도가 낮은 사람이 자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율성이란 자신이 선택한 목표와 가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통제, 조절, 적응시키는 능력(의지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민병배 등, 2021). SD1 하위척도에서 점수가 낮은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타인이나 외부환경 탓으로 돌리거나 핑계를 대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지 않는다(민병배 등, 2021). SD4 하위척도에서 점수가 낮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꿈꾸며 그런 모습을 가장하고, 부귀나 지위, 아름다움 등에 대한 환상을 꿈

꾸는 경향이 있다(민병배 등, 2021). SD5 하위척도에서 점수가 낮은 사람은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목표를 성취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며,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강한 유혹을 뿌리치거나 상황적인 압력을 극복하지 못한다(민병배 등, 2021).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개인으로 하여금 마약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여 불법행위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자율성(SD)과 인내력(PS)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에 대한 의존도 수준이 높을수록 행동 통제능력이나 의지력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통제능력과 의지력이 약해 약물의존도 정도가 심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율성은 인내력을 높이고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율성과 유사한 개념으로서의 '자아 효능감과 약물남용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여성 약물남용자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자아실현 경향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약물남용 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Shafikhani et al., 2018), 중독 치료 및 재활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성인 여성 약물남용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남용 재발 예측에 대한 연구에서는, 여성의 물질남용 재발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상황 지각,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shirian et al., 2021).

자기초월(ST)은 모호함과 불확실성에 대한 태도, 상상력과 예술 또는 운명과 종교 및 자연의 이치 등에 대한 감흥,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에 대한 태도, 최선을 다한 노력 이

후의 실패나 성공 등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이수진 등, 2014). 자기초월이 높은 경우에는 이상주의적이며 숙고하는, 진솔한/자기망각의, 전인적/초월적인, 영성적 특성을 보이며, 낮은 경우에는 실용적이고 비판적이며, 자의식이 강한, 이기주의적인, 회의적인 특성을 보이게 된다. ST1(창조적 자기망각) 하위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관계에 깊이 관여하거나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할 때 자신의 경계를 초월하는 경향이 있으며, 잠시 동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고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식을 잃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른 데 정신이 팔린'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Kose, 2003). ST2(우주만물과의 일체감) 하위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때로 '모든 것은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의 일부'라는 느낌을 보고하기도 하며, 뜬구름을 쫓는 이상주의자로 치부되기도 한다(민병배 등,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고위험군의 높은 자기초월 성향은 불만족스런 현실에서 벗어나 높은 정신적 엑스터시를 경험하고자 하는 성격적 특성으로서, 도박 중독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약물남용자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사료된다. 요약하면, 본 연구를 통해 약물남용자의 일반적인 특성인 '높은 자극추구' 성향을 확인하였고, 중독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의 특성인 '높은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낮은 자율성' 및 '높은 자기초월'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높은 자극추구(NS) 성향은 약물에 대한 호기심과 약물사용 가능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높은 위험회피(HA)와 높은 자기초월(ST)은 약물 중독의 위험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한편,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성격적 차원의 자율성(SD)은 약물의 존도와 부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자율성은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서울 및 인천 소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개 기관에 교육 의뢰된 대상자 54명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대표성이 부족하고 표본의 크기가 작다는 점이다. 또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TCI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함께 비교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다수의 연구와 같이 중독자나 재범자가 아닌 초범인 약물남용자를 대상으로 기질 및 성격적 특성을 분석하였다는데 우선 그 의의가 있다. 그 결과, 약물 남용자의 일반적인 기질 및 성격 특성, 군집별 특성, 약물의존도 수준별 집단의 특성 및 남녀의 특성 차이를 확인하였다. 특히 고위험군의 특징인 '높은 자극추구 및 높은 위험회피 성향과 '낮은 자율성' 및 '높은 자기초월'이 중독 위험성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초범자가 중독에 이를 가능성을 평가하는 도구로서의 TCI의 유용성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약물남용 예방교육 및 상담의 확대와 더불어 TCI검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약물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본 연구 설문에서 전체 대상자의 96.3%인 52명은 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면담과정에서 '약물의 위험성과 중독의 폐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미리 받았

더라면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교육 및 상담 과정에서 실시하는 TCI 검사는 중독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강점과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약물남용 예방에 대한 홍보활동과 예방교육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해외의 경우, 홍콩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청소년의 향정신성약물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고안해 왔다는 점(Cheung & Cheung, 2019)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중등학교에서는 흡연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노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도 예방프로그램으로서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둘째,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초범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그 내용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2020년 현재 기소유예 대상자의 23%만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교육 의뢰되었다. 고령이나 해외거주 등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제외하더라도 초범자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 프로그램에서 TCI 검사의 적극적 활용과 남녀 약물남용자의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다양화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권민, 민정아, 최지혜, 김대진 (2012). 대마초 및 메스암페타민 남용자들의 기질 및 성격 특성. *대한생물정신의학회*, 19(2), 99-105.

김남희 (2017).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 예측 연구: 확장된 건강서비스이용 행동모형의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69(3), 165-191.

김명식 (2013). 비행 및 범죄성향에 대한 심리 상담과 교정을 위한 TCI 검사의 활용. *교정담론*, 7(1), 251-272.

김성이, 김은아 (2004). 약물사범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195.

대검찰청 (2021). 2020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21). TCI 기질 및 성격검사 통합 매뉴얼. ㈜마음사랑.

박상규 (2002).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자기사랑하기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693-703.

박상규 (2004). 마약류 의존자의 심리적 특성. *상담학연구*, 5(4), 899-910.

박진실 (2017). 마약류사범재범방지를 위한 해외 사례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19(3), 187-220.

이수진, Cloninger, C. R., Cloninger, K. M., 채한 (2014). 기질 및 성격검사의 통합의학적 활용.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5(3), 213-224.

이정혁 (2019). 국내 마약류 확산에 따른 합리적 대처방안. *한양법학*, 30(4), 119-143

이정혁 (2021). 마약류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조정우 (2019). 마약류 투약자 중심의 마약수사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5(2), 53-66.

진영호, 박상규, 권석환, 윤태호, 장기용, 정원후, 장진열 (2000). 필로폰 남용 환자의

- MMPI 양상. *중독정신의학*, 4(1), 24-29.
- 한영옥 (2012). TCI 반응 양상을 통해 본 남성 병적 도박자의 기질 및 성격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4), 873-889.
- Allen, J. P., Faden, V., Rawling, R., & Miller, A. (1990). Subtypes of substance abuser: Personality differences associated with MacAndrew scores. *Psychological Reports*, 66(2), 691-698.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eck, A. T., Wright, F. W., Newman, C. F., & Liese, B. (1993). *Cognitive therapy of substance abuse*. New York: Guilford Press.
- Blume, S. B. (1989). Dual diagnosis: Psychoactive substance dependence and th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sychoactive Drugs*, 21(2), 139-144.
- Broner, R. K., Herbst, J. H., Schmidt, C. W., Bigelow, G. E., & Costa, P. T. (1993).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mong drug abuser: Relations to other personality diagnoses and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1(5), 313-319.
- Calsyn, D. A., Roszell, D. K., & Chaney, E. F. (1989). Validation of MMPI profile subtypes among opioid addicts who are beginning methadone maintenance treatmen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5(6), 991-998.
- Cheung, Y. W. & Cheung, N. W. (2019). Adolescent drug abuse in Hong Kong: Prevalence, psychosocial correlates, and preven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64(6), S28-S33.
- Cloninger, C. R. (1987). A systematic method for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 proposal.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6), 573-588.
- Cloninger, C., Przybeck, T., & Svrakic, D. (1991). The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US normative data. *Psychological Reports*, 69(3 Pt 1), 1047-1057.
- Cloninger, C., Przybeck, T., & Svrakic, D. (1993). A psychobiolog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12), 975-990.
- Cloninger, C., Przybeck, T., Svrakic, D., & Whitehead, C. (1993). Differential diagnosis of personality disorders by seven-factor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12), 991-999.
- Cloninger, C., Przybeck, T., Svrakic, D., & Wetzel, R. D. (1994).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A guide to its development and use*. Center for Psychobiology and Personality, Washington University, Saint Louis, Missouri.
- Goth, K., Cloninger, C. R., & Schmeck, K. (2003). *Das Temperament und Charakter Inventar Kurzversion für Erwachsene-TCI R Kurz*. Department of Psychology, Johann Wolfgang Goethe University, Frankfurt.
- Greenfield, S. F., Brooks, A. J., Gordon, S. M., Green, C. A., Kropp, F., McHugh, R. K., & Miele, G. M. (2007). Substance abuse treatment entry, retention, and outcome in women: A review of the literature. *Drug and Alcohol Dependence*, 86(1), 1-21.

- Hall, J. E., Williams, J. G., & Button, K. (1993). Cluster analysis of MMPI scales of patients involuntarily committed for chemical dependency treatment. *Psychological Reports*, 73(3 Pt 1), 739-744.
- Henderson, M. C., Kalichman, S. C., & Dugoni, B. (1994).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young adult offspring of substance abusers: A study highlighting methodological issu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3(1), 117-134.
- Janiri, L., Martinotti, G., Dario, T., Schifano, F., & Brià, P. (2007). The gambler's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TCI) personality profile. *Substance Use and Misuse*, 42(6), 975-984.
- Johnson, R. S., Tobin, J. W., & Cellucci, T. (1992).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cocaine and alcohol abusers: More alike than different. *Addictive Behaviors*, 17(2), 159-166.
- Kaplan, H. I., Sadock, B. J., & Grebb, J. A. (1994).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medical condition (psychosomatic disorders). In R. Cancro (Ed.), *Synopsis psychiatry* (7th ed., pp. 752-782). Baltimore, MD: Williams & Wilkins.
- Kim, S. W. & Grant, J. E. (2001). Personality dimensions in pathological gambling disorder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Psychiatric Research*, 104(3), 205-212.
- Kim, Y. (2014). Validating a Korean version of the drug abuse screening Test-10 (DAST-10).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40(2), 232-241.
- Kinnier, R. T., Metha, A. T., Okey, J. L., & Keim, J. (1994). Adolescents substance abuse and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Alcohol and Drug Education*, 40(1), 51-56.
- Kose, S. (2003). A psychobiolog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TCI. *Yeni Symposium*, 41(2), 86-97.
- Kuhar, M. (2012) *The addicted brain: Why we abuse drugs, alcohol and nicotine*. New Jersey: Pearson FT Press.
- Ladd, J. S. (1996). MMPI-2 critical item norms in chemically dependent inpati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2(3), 367-372.
- Le Bon, O., Basiaux, P., Streel, E., Tecco, J., Hanak, C., Hansenne, M., Ansseau, M., Pelc, I., Verbanck, P., & Dupont, S. (2004) Personality profile and drug of choice: A multivariate analysis using Cloninger's TCI on heroin addicts, alcoholics, and a random population group. *Drug and Alcohol Dependence*, 73(2), 175-182.
- Moss, P. C., & Werner, P. D. (1992). An MMPI typology of cocaine abuser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8(2), 269-276.
- Mushanyu, J., Nyabadza, F., Mafuta, P., & Ngarakana-Gwasira, E. T. (2018). Modelling gender differences in drug abuse epidemics.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and Computational Mathematics*, 4(1), 1-21.
- Nordin, C. & Nylander, P. O. (2007). Temperament and character in pathological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3(2), 113-120.
- Otsuki, T. A. (2003). Substance use, self-esteem, and depression among Asian-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Drug Education*, 33(4), 369-390.

- Penk, W. E., Robinowitz, R., Woodward, W. A., & Hess, J. L. (1978). Difference in MMPI scores of black and white compulsive heroin us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5), 505-511.
- Robins, L. N. (1998). The intimate connection between antisocial personality and substance abuse.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y Epidemiology, 33*(8), 393-399.
- Shafikhani, M., Bagherian, F., & Shokri, O. (2018). The mediating role of time perspectiv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self-efficacy and the tendency toward substance abuse in female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IPA), 121*(1), 208-231.
- Skinner, H. A. (1982). The drug abuse screening test. *Addictive Behaviors, 7*(4), 363-371.
- Smith, M. F. & Hiller, H. C. (2021). Influence of drug abuse on human health in United States of America. *African Journal of Emerging Issues, 31*(1), 16-28.
- Tarter, R. E. (1988). Are there inherited behavioral traits that predispose to substance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2), 189-196.
- Weed, N. C., Butcher, J. N., McKenna, T., & Ben-Porath, Y. S. (1992). New measures for assessing alcohol and drug abuse with MMPI-2 and AA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8*(2), 389-404.
- Widiger, T. A., Trull, T. J., Clarkin, J. F., Sanderson, C., & Costa, P. T., Jr. (1994). A description of the DSM-III-R and DSM-IV personality disorders with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In P. T. Costa, Jr. & T. A. Widiger (Eds.), *Personality disorder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pp. 41-56).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Zuckerman, M. (1974). The sensation seeking motive.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7*, 79-148.
- Zuckerman, M. (1983). Sensation seeking: The initial motive for drug use. *Etiological aspects of alcohol and drug abuse, 202-220*.
- Zuckerman, M. (2008). Personality and sensation seeking. *The SAGE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assessment, 1*, 379-398.

원고접수일 : 2023. 11. 29.

게재확정일 : 2023. 12. 29.

The TCI Profile Characteristics of Drug abusers in the First-time Offender Group*

Seol, Jaeyong

Lee, Jang-Ha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Ph.D. student

Professo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general TCI temperament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first-time drug abusers and compared the differences in TCI profiles between groups through cluster analysis. In order to classify all study subjects into groups with simila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we conduct cluster analysis using the seven TCI-RS top scales. We verified differences in TCI characteristics of each cluster through one-way ANOVA. Based on the DAST-10 scale, a tool for determining drug dependence, we classified into low-risk, medium-risk, and high-risk groups, and verified the difference in scores on the TCI scale between the three group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rug abusers had higher 'novelty-seeking' scores compared to normal adults'. Second, female drug abusers showed higher 'harm-avoidance' scores than males. Third, the more severe the drug dependence, the higher the novelty-seeking, harm-avoidance, and self-transcendence, and the lower self-directedness. Fourth, among the variables of TCI, novelty-seeking, harm-avoidance, and self-transcenden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drug dependence, that is, the risk of addiction. Self-directedness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drug dependence,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persistence. The study confirmed that 'high novelty-seeking' was a general characteristic of drug abusers, and 'harm-avoidance' was related to the severity of drug dependence. In addition, the addiction vulnerability of female drug abusers was confirm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gh-risk group' with high addiction risk were 'high novelty-seeking and high harm-avoidance', 'low self-directedness' and 'high self-transcendence'.

Key words : narcotics, drug abuser, first-time offender, addiction, rehabilitation, prevention, TCI, temperament, character

* This paper is a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 Corresponding Author : Jang-Ha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Korea, E-mail: clipsy@cau.ac.kr